

보험중개사(공통) - 보험관계법령 등 - 1쪽

1. 보험업법상 보험안내자료에 기재할 수 없는 것은?

- ①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 ②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 ③ 보험금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④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2.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이 아닌 것은?

- ①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 ②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 ③ 직접·간접을 불문한 정치자금의 대출
- ④ 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

3.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 이상, 법인은 (㉡) 이상으로 하고 있다. 괄호 안에 알맞은 금액은?

- ① ㉠ 1억원 ㉡ 2억원
- ② ㉠ 1억원 ㉡ 3억원
- ③ ㉠ 5천만원 ㉡ 1억원
- ④ ㉠ 5천만원 ㉡ 2억원

4. 보험중개사의 등록결격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자
나.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다.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라. 부채가 자본을 초과하는 법인

- ① 가, 나
- ② 다, 라
- ③ 가, 나, 다
- ④ 나, 다, 라

5. 보험중개사가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나. 개인의 경우 본인이 사망한 경우
다.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라. 보험중개사가 그 소속 보험설계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 ① 가, 나
- ② 나, 다
- ③ 나, 다, 라
- ④ 가, 나, 다, 라

6. 보험의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중개사는 전문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전문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② 보험중개사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보험중개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보험중개사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없다.

7.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유형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보험료로 받은 수표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나.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다.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라.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① 가, 나
- ② 다, 라
- ③ 가, 다, 라
- ④ 나, 다, 라

8. 보험업법상 보험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명보험업이라 함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손해보험업이라 함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③ 보험업법은 보증보험을 손해보험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④ 보험업법은 손해보험업과 생명보험업을 원칙적으로 겸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 다음 ()안에 들어갈 사항으로 알맞은 것은?

보험회사인 주식회사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① 1주 - 회계장부 ② 1주 - 손익계산서
- ③ 2주 - 회계장부 ④ 2주 - 대차대조표

10.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시 보험회사가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의 제정·개정에 따라 새로운 보험상품이 도입되거나 보험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 ② 조문체제 변경 등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초서류를 변경하는 경우
- ③ 보험회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경우
- ④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1. 상법상 각 보험증권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해보험증권 : 보험증권의 작성지
- ② 화재보험증권 :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 ③ 운송보험증권 : 운송의 노선과 방법
- ④ 해상보험증권 :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항해의 범위

12. 상법상 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자기를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1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3.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이다.
- ② 고지의 시기는 보험계약 당시이다.
- ③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 ④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자는 그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14. 상법상 손해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② 보험계약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상품가액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③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기본적으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
- ④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15. 상법상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재산상 및 신체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 ③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 ④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6. 상법상 책임보험계약상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다면 보험자는 그 합의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면한다.

17.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및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약관은 고객의 이해수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 ㉡ 인쇄된 보험증권에 다른 문언들이 첨가된 경우 인쇄된 원래 문언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최종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 ㉢ 보험자가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그 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보험약관의 적용이 배제된다.
- ㉣ 약관의 내용 중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까지 부연 설명할 필요는 없다.
- ㉤ 약관해석에서 작성자불이익원칙은 객관적 해석원칙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해석원칙이다.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18.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분납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해지예고부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제6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② 낙부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38조의2 제1항은 가입자 보호를 위한 특칙이므로 보험자가 이를 배제하면 상법 제663조 위반이 된다.
- ③ 어선공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하는 비영리 공제사업의 하나로 소형 어선을 소유하며,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영세어민들을 주된 가입대상자로 하고 있어 공제계약 당사자들의 계약 교섭력이 대등한 기업보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어선공제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④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9.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피보험자가 자살할 경우 보험자가 면책하지 못한다는 약관 규정은 유효하다.
- ② 특정한 종류의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자가 면책하지 못한다.
- ③ 특정 종교를 믿는 신앙을 이유로 한 수혈거부가 사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피보험자 등의 수혈거부행위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보험자가 그 보험금의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보험계약자 등이 자동차를 운행하여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예상 하였던 범위를 훨씬 벗어나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사망에 준하는 중상해의 결과가 생겨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고의로 인한 손해로서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면책된다.

20. 보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 약정을 한 경우,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 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한다.
- ②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 ③ 보험설계사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해주었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약관상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된다.
- ④ 보험료 청구권은 보험자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21.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이다.
- ②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甲이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법정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의 경우, 甲의 보험금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그 당시의 장해상태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당초의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약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와 같은 장해상태의 악화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책임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배상책임이 상법 제72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의 방법 등에 의하여 확정됨으로써 그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22. 상법상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로부터 개시한다.

- ① 청약일
- ② 계약성립일
- ③ 보장개시일로부터 90일
- ④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

23.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고지의무위반시 불고지는 중요한 사항인줄 알면서 알리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중요사항은 위험인수 및 보험료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다.
- ㉡ 고지의무위반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임은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 기간은 상법상의 소멸시효기간으로서 약관에서 달리 정할 수 없다.
- ㉣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발생한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때에도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24. 보험수익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그 보험수익자는 당연히 그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보험자에 대해 직접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전·후를 불문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 할 수 있다.
- ④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수익자 변경권은 형성권으로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보아야 한다.

25. 다음 중 상해보험에 준용되지 않는 생명보험 관련 규정은?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 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732조의 2 제1항)
- ③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732조)
-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상법 제733조 제1항)

26. 다음 중 보험수익자가 부담하는 상법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고지의무(상법 제651조)
- ② 중복보험의 통지의무(상법 제672조 제2항)
- ③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시 통지의무(상법 제652조)
- ④ 위험유지의무(상법 제653조)

27. 해상보험계약에 대한 상법의 규정으로 옳은 것은?

- ① 선박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며, 선박이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② 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본다.
- ③ 선박의 존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그 선박은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하고 전손으로 추정한다.
- ④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조건부 위부의 통지를 할 수 있으나,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도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위부하여야 한다.

28. 상법상 보험계약 당사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그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 ① 중복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보험계약자가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하고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한 경우
-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지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 ④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29.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경우
- ②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는 통지를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경우
- ③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
- ④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30.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상법 제644조의 규정이 가지는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보험사고의 동질성
- ② 보험사고의 주관적 불확정성
- ③ 보험사고의 우연성
- ④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

31. 다음 중 보험가능위험의 요건에 비재난적 손해가 포함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개별 보험목적물에 발생하는 손해규모가 작다.
- ② 대수의 법칙 적용이 용이하다.
- ③ 한정적 위험(specific risk)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 ④ 총 손실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32. 다음 중 위험보유(risk retention)가 적절한 선택이 되기 위한 조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위험분산이 가능해야 한다.
- ② 예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 ③ 최대가능손실이 작아야 한다.
- ④ 충분한 자금력과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 다음 중 통계적 측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분류한 위험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순수위험과 투기적 위험
- ② 근본위험과 특정위험
- ③ 정태적 위험과 동태적 위험
- ④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34. 다음 보험의 특성 중 대수의 법칙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위험 집단화
- ② 우연한 손실
- ③ 위험의 전가
- ④ 실손의 보상

35. 다음 중 아래 보기에서 자본시장을 이용하는 대체위험 전가(alternative risk transfer)와 관련이 있는 것만 열거한 것은?

- ㉠ 캡티브보험사(captive insurer)
- ㉡ 대재해채권(cat bond)
- ㉢ 한정리스크계약(finite risk contracts)
- ㉣ 무과실법(no-fault law)

- ① ㉠
- ② ㉠, ㉡
- ③ ㉠, ㉡, ㉢
- ④ ㉠, ㉡, ㉢, ㉣

36. 다음 투자리스크 중 체계적 리스크(systematic risk)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자산의 구성과 가치에 영향을 주는 금리리스크(interest risk)
- ② 투자증권을 유통시장에서 현금화할 때 노출될 수 있는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 ③ 한 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른 국가리스크(country risk)
- ④ 장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매력이 감소될 구매력리스크(purchasing power risk)

37. 다음 중 ‘72의 법칙’을 적용하는 경우 100만원을 연 10%의 복리상품에 투자하여 원금의 2배인 200만원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년)은?

- ① 3.6년 ② 7.2년 ③ 10.0년 ④ 14.4년

38. 다음 중 주택담보대출의 총 상환액이 가계의 총소득 대비 특정 비율 이하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부채심사 기준비율은 무엇인가?

- ①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ratio; DTI)
- ② 총채적상환능력심사비율(debt service to income ratio; DSR)
- ③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LTV)
- ④ 임대업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 RTI)

39. 다음 중 연말정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우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한다.
- ②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결정된다.
- ③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 ④ 산출세액에서 '소득공제'항목 금액을 제외하면 근로자가 납부하거나 또는 환급받을 세금이 산출된다.

40. 거주자인 개인 홍길동이 2020년 현재시점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② 보험료 납입기간이 최초납입일로부터 5년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 ④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